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VII)

— 우주철학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우주철학이란 무엇인가

우주철학이란 조지. 애덤스키가 말한 우주적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저서「우주 철학」, 「초능력 개발법」, 「생명과학」 3부작의 총칭이기도 하고, 애덤스키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철학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보통 우주철학이라고 하는 경우는 위의 책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덤스키 철학의 별칭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3부작 중, 「우주철학」은 애덤스키의 우주적 사상의 개요, 「초능력 개발법」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초능력(특히 텔레파시)의 개발방법, 「생명과학」은 인체 세포의 실체와 인간 상념과의 관계, 심령 현상의 잘못 등을 해설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신 애덤스키 전집(전10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3부작 중, 「생명과학」은 애덤스키가 타계하기 전해인 1964년에 발표된 절필(絶筆)이라고도 말할 만한 것으로, 그의 우주적 사상과 인간의 상념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세계 최고의 인간 개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덤스키가 「생명과학」을 발표한 당시, 미국인으로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 중에는 기적적인 일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인은 지극히 솔직 명쾌한 민족으로 좋은 의미로 말하자면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행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현상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순수함"이 바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뚤어진 사람이나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탱하는 “우주의 의식”

에덤스키의 「생명과학」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삼라만상이 「우주의 의식」(cosmic consciousness)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창조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철저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라고도 할 만한 것으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에덤스키는 우주의 의식이라는 조어를 이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에덤스키에 의하면 우주의 의식에는 창조적 힘, 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의 지혜를 훨씬 능가한 절대적 실재라고 하므로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우선 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송이의 빨간 장미꽃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빨간 장미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성이 풍부해지면, 그 꽃에 무엇인가 창조에너지의 파동 같은 것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꽃 전체를 살리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에덤스키는 우주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성이 풍부해지면, 꽃을 살려서 지탱하고 있는 우주의 의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도 살려서 지탱하고 있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꽃과 인간을 살려서 지탱하고 있는 우주의 의식이란 결국 공통된 근원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꽃도 인간도 본래 한 몸이며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일체감이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만물 일체감을 극도로 높이면 텔레파시 능력이 발현됩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지를 감지할 수 있고, 꽃을 향해서 부르면 꽃이 이쪽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게 된다고 에덤스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주의 의식의 힘

우리들 인간은 자신의 개체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내부에 머무는 우주의 의식의 일부이며, 절대적인 실재물입니다. 이 내부의 우주의 의식이 표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바른 전달의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일반인은 마음을 잡다한 상념으로 충만시키고 있기 때문에 즉,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부로부터 오는 인상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인상을 감지하는 일이 있으며 그것을 인스피레이션 또는

영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 체내에 머무는 우주의 의식이 마음에 인상(Impression)을 전한 것이라고 애덤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매가 죽은 자의 혼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소위 영계 통신(靈界 通信)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영매의 체내 세포로부터 오는 인상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은 내부에 머무는 우주의 의식에 의해 살려지고 저택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삶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인간 내부의 우주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현장의 초인적인 힘」이라고 말해지는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집의 화재로 귀중한 물건을 옮겨 내와야 할 필요에 처해졌을 때 평상시에는 안을 수도 없을 것 같던 무거운 물건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들어 내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체내의 우주의 의식입니다. 그 밖에 인간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우주의 의식입니다.

기적을 발생시키는 방법

이러한 식으로 우주의 의식은 인간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무엇인가 소원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경우 강렬한 신념을 일으켜서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상념을 계속해서 발하면 내부의 우주 의식이 강대한 힘을 발휘해서 실현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덤스키는 「생명 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만들어 내는 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현상화시키려고 생각한 경우에 그것을 생각해 낸 의식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의 의식적인 청사진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청사진의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결과(실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에 의한 명령을 내리면서 명료한 이미지를 그리세요」 이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소원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강렬한 반복상념을 하고, 벌써 실현 되버린 광경을 이미지로서 마음속에 계속 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방법을 응용하며 많은 사람에게도 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려 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말을 miracle word(기적을 일으키는 말)라고 명명하고, 실현돼 버린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miracle image(기적을 일으키는 이미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복상념법, 이미지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병용

해서 몇 번이나 기적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상념과 이미지법은 일본 GAP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과 같은 방법을 응용한 능력개발 기관이 이후 죽순처럼 생겨서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S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도쿄의 니시신쥬꾸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을 지도하며 이것을 cinematics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뇌파를 알파파의 상태, 즉 마음이 대단히 안정되고 온화한 상태가 되도록 한 뒤에 영화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조셉·머피 박사가 역시 신념을 가지고 말을 외친다든지 이미지를 그린다는지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복상념과 이미지법은 모두가 응용할 수 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방법은 많은 사람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적 발생의 실례

반복상념법과 이미지법을 응용해서 기적을 발생시켰던 사례는 일본 GAP 회원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를 두 세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연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실례입니다.

(1) 갖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고급 자동차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예

시즈오카 현의 이즈반도에 사는 회원 다까나시(高梨十光)씨는 20년 이상이 된 오랜 회원으로 우주철학에 열심인 실천가이며 UFO 관측도 열의를 가지고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UFO 관측용으로 천장이 개폐되는 특별한 사양의 차를 꼭 갖고 싶어했습니다.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 저편으로부터 올 위대한 외계인의 우주선을 목격하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는 2백만엔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2백만엔은 그에게 있어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키 철학을 이해한 그는 결코 단념하는 일없이 이번에는 한 번 반복상념과 이미지법을 응용해서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벌써 기쁨으로 그 차를 운전하며 산길을 질주하고 열린 천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수대의 UFO를 보면서 환성을 지르고 있는 광경을 명료하게

이미지로서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다.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개월 후에 뜻밖의 곳에서 2백만엔의 돈이 들어 와서 당시로서는 고급 차였던 도요타·세리카를 멋지게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부인의 친정 부모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라고 하며 성금 내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차를 몇 번인가 타고 함께 UFO를 관측하러 갔습니다만, 타는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의 불꽃 대화라도 하는 듯한 밤하늘에 수많은 UFO가 난무하는 굉장한 광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2)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한 휴가를 기적적으로 받았던 예

야마가다현의 회원으로 시바다 후미코(紫田文子)씨라고 하는 열성 여성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습니다만, 독신이었을 때인 1984년 8월에 일본 GAP 기획의 해외 연수여행 「제 2차 예루살렘 우주 고고학 여행」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꼭 참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성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몸이 떨려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1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체로,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GAP의 해외 연수 여행에서는 「돈은 어떻게든 되는데, 회사의 휴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 기업은 엄격한 것이겠죠. 그러나 시바다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행에 참가 할 수 있다!」라는 반복 상념을 행하며 자신이 많은 사람과 함께 즐겁게 여행에 참가하고 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기적적으로 12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기쁨에 차서 여행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리브 산의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시가를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옆모습이 지금도 저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팔레스티나의 대지를 걸던 그녀는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3) 심장병이 완치된 예

수도권에 사는 회원인 어떤 남자 분은 오랜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낫기 어렵고 선불리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우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구원의 여신이 미소를 던졌던 것입니다. 언젠가 「생명 과학」을 읽고 인간의 육체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

다. 그는 자신의 육체 내부에 완벽한 건강체의 청사진이 잠재되어 있고, 그 청사진을 끊임없이 이미지로서 계속 그리면 육체도 마침내 건강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병은 완치되고 이미지 그대로의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때 도쿄 월레 세미나에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회원입니다. 이제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4) 이상적인 배우자를 발견한 예

도쿄에 사는 회원 T씨는 독신이었을 때, 이상적인 배우자를 발견하기를 꿈꾸고 있었으며, 「반드시 찾게 된다!」라는 신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혼자서 여행을 하려고 관광 버스를 탔을 때 옆 좌석에 앉은 여성과 무심코 대화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되어 사랑이 싹텄고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이상적인 배우자 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T씨의 강렬한 신념이 그 여성을 끌어 당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5) 상념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실례를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상계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애덤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라도 그것은 원인이 있는 결과이며, 즉 인과관계이며 이것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신념, 즉 확신에 찬 상념이며 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렸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내부의 우주의 의식에 깊게 새겨지는 것에 의해서 우주의 의식이 실현 방향을 향해서 강력한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미해명된 메커니즘이므로, 「하는 듯 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실례로 봐서 이와 같은 미지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귀납적으로 말해서 틀림이 없겠죠. 죠셉·머피도 이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경우는 애덤스키가 말한 「우주의 의식」을 「잠재 의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피에 의하면, 「잠재의식은 우주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인간의 신념으로 가득 찬 강렬한 상념이나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지면 잠재의식이 실현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잠재의식은 절대로 공평하기 때문에 건설적, 긍정적인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찬 상념(이것을 우리들은 플러스 상

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이든지, 그 반대의 소극적, 부정적인 어두운 상념(이것을 우리들은 마이너스 상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이든지 차별없이 양방에 대해서 공평하게 손을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에머슨의 말이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의 건강·쇠약은 거의 100 퍼센트 본인의 상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은 건강하다」라는 밝은 플러스 상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자신은 건강하지 않은 약한 인간이다」라고 믿어 버리고 있는 사람은 자주 병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 부인의 언니는 간호사 생활 30년이라고 하는 그 방면의 대단한 전문가인데 그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입원 환자의 정신 상태를 관찰하면 밝은 플러스 상념을 가진 환자는 쉽게 낫지만, 어두운 비관적인 마이너스 상념을 가진 환자는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것은 100 퍼센트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애덤스키나 머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그 사람 자신도 영업 사원이라고 하는 직업상, 설득에 의한 권유의 일도 「이 일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념을 일으킨 뒤에 상대와 접하면, 정말로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태양계 내의 지구 이외의 혹성에는 전부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게다가 위대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이 외계인들은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초 플러스의 상념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늙는 일없이, 지구식으로 연령을 환산해서 수백살부터 일천살까지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인 중에도 플러스의 상념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른 혹성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초장수도 있을 수 있는 일 이겠죠. 이 자세한 내용은 신 애덤스키 전집 제 1권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조셉 · 머피가 기적발생을 지도한 예

이상으로 상념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강렬한 상념은 병 치료 뿐 아니라 소원도 실현시키며 겨우로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상념이 가진 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상념은 우주의 의식의 도우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애덤스키의 「생명 과학」은 정신 법칙의 이론적인 책이지만, 머피의 저서에는 기적 발생의 실례가 풍부하게 나와 있으므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다. 조셉·머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신학, 법학, 철학, 약리학, 화학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정신 법칙의 지도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저서는 많이 나와 있으며 일본에서도 번역서가 몇 종류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신에게도 초능력이 있다」아가가와 게이(中川啓二)번역에서 소개되는 실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1) 분실물을 발견한 예

한 여성이 5캐럿의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리고 반은 정신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피는 다음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잃어버린 반지를 끼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며 그 딱딱함이나 감촉 등을 느끼고 자기 전에 그 반지를 빼서 보석상자안에 넣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며 무한의 마음으로는 무엇도 잃어버린 것은 없다고 믿고 반지가 발견된 것을 감사하는 「신이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잠이 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30일째의 밤, 그녀는 반지가 종이에 싸여서 가정부 방의 오래된 구두 안에 숨겨져 있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을 깨어 가정부 방으로 가보니, 꿈에서 본 대로 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머피는 잠재의식이 확대력을 보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이 꿈이라는 형태로 그녀에게 해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2)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예

전부터 항공 파일럿을 지망하고 있던 한 청년이, 파일럿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땀지만 불경기로 쉽게 항공회사에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어느 항공회사가 10명의 파일럿을 모집했을 때 놀랍게도 2,500명이나 지원자가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청년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머피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이미 취직해서 파일럿의 제복을 입고 비행하러 나가기 위해서 비행장을 향해 차를 달리고 있는 광경이나 훈련에 필요한 반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를 그렸다는 뜻입니다. 3주 정도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렸더니 회사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한원은 전부 충원되었지만 개강 하루 전에 그 중 한사람이 그만뒀서, 결국 청년이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청년이 바라며 느꼈던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머피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3) 주술에 걸려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던 부인이 구제된 예

교회에 다니고 있던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모임 사람들이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녀가 좌절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술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피는 대강 다음과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상대의 저주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공포심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술을 걸고 있다. 타인의 암시가 자신의 생각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힘은 자신의 안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상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암시에 지나지 않는다. 암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력한 것이다. 자신 안의 무한한 사랑과 생명과 힘에 일체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녀는 안심하며, 상대의 저주를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 2주일 동안 했더니 교회의 회원 중 다섯 명이 심한 병에 걸렸고, 그 중 한 명은 죽어 버렸습니다. 머피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젊은 여성이 이제는 단체의 부정적인 암시에 상처를 입거나 동요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의 나쁜 생각은 확대되어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갔던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부메랑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옛날에 사용하고 있던 원시적인 목제 무기이며 먼 곳에 있는 적을 향하여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지만, 만약 적에게 맞지 않으면 공기역학의 응용으로 선회해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이것과 같은 식으로 인간의 지독한 원한이나 증오의 상념은 상대에게 눈치 채이든지, 또는 눈치 채여도 상대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 상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거꾸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메랑 현상에 의해서 자신의 마이너스 상념으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포심이야말로 자신을 상처 입히는 악마

한편, 앞에 언급한 예와 같이 타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다, 저주를 받고 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믿어 버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포심이 자신을 상처 입히는 악마인 것이지, 타인이 악마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마도 신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피가 흥미진진한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부르크의 금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산 갱내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규칙을 어기면, 본인은 부두교의 기도사로부터 「너는 오후 6시에 죽을 것이다」라고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는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은 채 죽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등은 기도사의 저주 파동이 심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선고받은 갱부의 무서운 공포심이 자기 체내의 여러 기관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적으로는 OCD(강박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끄럽고 수선스러운 현대 사회의 나쁜 여파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계속되면 육체는 방위반응이 과잉되고 자율신경이 둔화되며 이것이 면역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 류마티스, 에이즈, 암, 그 밖의 난치병에 걸리기 쉽게 되므로 뭐니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그것을 없애는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병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니뭐니 해도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찬 건설적인 플러스 상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항상 밝고 즐거운 상념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 병이 든 사람도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반복상념과 이미지 법을 응용해서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건강해져 버린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면 가장 좋습니다. 단 여기서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고도의 과학이며, 이 과학의 은혜를 입고 살아 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 현대의 의학은 상념과 육체와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있는 것 같은 것이지만, 의학 자체가 정신의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 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서 육체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도 점점 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수술, 그 밖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들은 환자는, 역시 병원에서 과학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도 「낫는다, 낫는다!」라고 계속 외치고 병이 나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린다면 좋은 의사와 만나게 되고 틀림없이 훌륭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플러스 상념이 그와 같은 병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며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상념법과 이미지법은, 본인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기적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학교를 지망하는 수

험생은, 그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무턱대고 공부를 하기보다도, 지망한 학교에 합격해서 그곳에서 즐겁게 배우고 있는 광경을 이미지로서 그리면서 공부를 계속하면 내부의 우주의 의식이 본인을 합격하는 방향으로 끌어 당겨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합격하기 위한 참고서나 예비학교의 좋은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미지를 그리면서 공부해도 지망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그 학교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내부 우주의 의식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교로 바꾸는 편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생활에서 탈출하려면

혼란으로 가득 찬 혹성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악화도 물론이거니와 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오해, 증상, 질투, 욕, 공격 등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 있고 자신만이 평안하고 축복 받은 생활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해에 의한 환경 파괴, 정치의 부패, 경제계의 변동, 그 외에 불안을 띤 상념과 동태의 대해 속에 가라앉은 것 같은 기분에 엄습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기말에 지구에 대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책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주변 인간관계의 악화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간의 대립이나 다툼, 비난 공격 등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좀 먹고 비뚤어지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념에 의해서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의해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것을 벗어나서 천국과 같은 평안한 생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단 하나, 자기 상념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아무리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정말로는 좋은 사람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상대가 상냥하게 미소지으며 자신과 악수하고 있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기적이 발생하고 어느날 정말로 상대가 미소 지으면서 찾아와서 사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부메랑 현상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이 상처 입든지 어딘가로 가버리겠죠.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하는 추상적인 말이나 이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렬한 선의를 일으켜서 「저 사람은 정말로는 좋은 사람인 것이

다」라고 외치면서 화해해 버린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상념으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

좀 더 고차원적인 상념으로서 「만물과 모든 사람은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외치고, 이 세계가 천국처럼 된 이미지를 그리면서 산다면 이것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만물과 만인을 창조해서 지탱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력인 우주의 의식이란 것은 만물과 만인의 생성발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적어도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물과 만인은 좋아진다!」라는 상념과동은 우주의 의식의 생성발전 파동과 동조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적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더구나 머피의 책에는 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항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머피가 말하는 신은 다수의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먼 공간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무한한 생명력, 사랑, 예지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애덤스키가 말하는 우주의 의식을 신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도, 강렬한 신념을 띤 실현시키는 말의 반복상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머피 저술의 「당신에게도 초능력이 있다」에는 애덤스키가 부정하는 심령적인 사항이 나오지만, 이것은 걱정할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정신 법칙의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무리 자신을 비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요, 저 사람은 정말로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사랑과 축복의 상념을 보내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졸작인 「UFO와 외계인의 진상」(중앙 아트 출판사)에 나오는 주인공 M씨입니다. 그 외에 이 사람과 비슷한 상념을 가진 사람이 일본 GAP 도쿄 본부 임원, 도쿄 월례 세미나의 단골 회원 중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 철학의 실천 응용에 의해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사는 보람이 있는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자기 내부에 숨겨져 있는 무한의 능력을 꺼내고 자신과 대우주와의 밀접 불가분한 관계를 인식해서 만물 일체감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높아지는 만큼 타인의 어려움이 남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 가므로, 다음에는 타인을

도와야지 라는 의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앞에 언급한 M씨는 대단한 초능력을 응용해서 병원에서 단념해 버린 난치병 환자를 원격 상념에 의해 치료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환자에게 스스로 반복상념과 이미지 법을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고,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이 일본 GAP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M씨의 원격 상념 파동이 치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초래하는 「생명 과학」

제가 왜 이 GAP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는지 말씀 드리자면, 그 이유는 저로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내부에서 「이 활동을 해라!」라는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쿄로 나온 뒤에는 생활고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GAP 활동만큼은 절대로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졸업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왜 제가 이렇게 까지 애덤스키 문제 때문에 고투했는가 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 안 것이지만, 다시 말해 저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사명과 같은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세계로 찾아 온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겠죠. 그래서 GAP 활동을 그만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GAP 활동에 협력할 목적으로 이 세계로 환생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GAP 회원 중에는 GAP가 싫어 졌다고 말하며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이므로 그것은 전연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는 「GAP를 졸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GAP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애덤스키가 창시한 우주적인 활동이고 지구가 금성과 같은 초고도의 혹성으로 발달할 때까지는 몇 천년, 몇 만년 걸려도 계속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이므로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애덤스키 철학은 굉장히 심원하며, 간단히 졸업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중학교 정도의 영어를 졸업할 수 없으며 때때로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나 참고서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 GAP를 경멸한 말투

라고 생각되는데 정신 분석학상으로 프로젝션이라고 불리는 법칙에 꼭 들어맞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통은 「투사(投射)」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결함 또는 차원낮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는 오만하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결함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남을 비난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결함이 상대에게 옮겨 갔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서 자신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그만 뒀을 때는 잠자코 있으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타인의 욕은 먼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욕을 하면 그것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결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고차원인 사람들의 동정을 살 뿐입니다.

반복상념의 끊임없는 실행

애덤스키 철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점취득을 위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대단히 심원하며, 저 같은 것은 몇 만년이 걸려야 졸업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완전히 진리를 터득한 성인과 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속물 같은 사람이라서 괴로움이나 고통도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금후 GAP 활동의 본연의 자세에 관해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다지 늙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므로 금후 GAP 활동에 관해 뒷날의 염려가 없도록 지금 확고한 기반 굳히기를 해 두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빈약한 머리로는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만으로 생각해서는 정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하면 그것은 애덤스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 내부의 “우주의 의식”에 호소해서, 그것에서 해답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용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어느 밤, 저는 언제나 처럼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위를 보며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상념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외치는 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완전, 무한히 완전, 절대 완전!」이 「절대」라는 말,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응용해서, 「나는 건강, 무한히 건강, 절대 건강!」이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영어로 외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반드시 외치는 말이며, 낮 동안이라도 틈만 있으면 외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보조에 맞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다른 상념으로서 「나는 대우주, 대우주는 나, 「만물은 나,

나는 만물」이라고 외치거나, 혹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조에 맞춰서 외치는 일도 있습니다. 저를 살리고 있는 대우주의 의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단 소리를 내어 외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는 각종 반복 상념을 깊이 잠들 때까지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 시행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습관인 것입니다.

머리 속에 울리는 의식의 소리

그 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고양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 내부의 우주의 의식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의식이여, 금후 GAP의 본연의 자세에 관해 무엇이든 좋은 생각이 있다면, 부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다시 이 말을 텔레파시를 이용해 우주인에게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몇 시 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잠을 깨고 나서 아직 머리가 공백 상태이고 마음은 완전히 맑아진 상태의 때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알파파가 나온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 어젯밤 꺼낸 질문을 한 번 더 마음속에 떠올려 내부 의식에 호소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돌연 큰 소리가 나고 회답이 머리 속에 울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기분으로 해 나가세요!」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확성기로 쿵하고 울리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울렸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단히 놀란 저는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전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으로 해 나가세요」라는 것은 틀림없이 하늘의 복음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며 완전히 수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문자 그대로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각성한 느낌이었습니다. 마호메트가 동굴 속에서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머리 속에서 소리가 울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뒤에는 일상의 모든 행동이 못 견디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즐거운 듯한 언동을 봐도 저까지 즐겁게 되어 갔습니다.

대우주는 미소 짓는다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까지 그다지 즐거운 느낌을 일으키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AP 활동을 하며 큰살림을 거느리고 있으면, 꽤 여러 가지 일

이 있으며, 때때로 기분이 초조해지고 안정되지 않는다면, 화가 난다든지 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만 이 내부 의식으로부터의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즐거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 듯 합니다. 우주 창조주의 창조파동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띤 파동이며 우주의 의식 차원의 세계, 그것은 불가현의 절대적인 세계이지만은 거기에는 에너지, 예지, 조화성 등과 함께 즐거움도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덤스키가 말한 우주의 의식이란 것은 생명 에너지, 예지, 조화성 등을 일괄한 총칭이지만 그 우주의 의식의 파동은 본래 즐겁고 기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발달을 이룬 다른 혹성의 사람들은 즐거운 기분에 사무쳐 있고, 도무지 비통감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신 애덤스키 전집 제 1권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의 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절대적인 즐거운 차원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곳까지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됩시다만, 대우주에 즐거움이 가득찬 차원의 세계가 충만해 있다고 한다면 「대우주는 미소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의식 즉 대우주의 창조주는 인간을 괴롭히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인간을 즐겁게 해 주려고 창조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인은 이 세계를 고통으로 가득찬 장소로서 「이 세상은 지옥이다」등과 같은 말을 하거나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제멋대로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국도 지옥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인은 자신의 내부에 “즐거운 원소(元素)”라고도 할 수 있는 원소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외계의 환경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과 같으므로 이래서는 아무리 환경이 변화해도 근본적으로 즐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기분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기쁜 느낌을 가지다 보면 반드시 그것에 응해서 좋은 일, 좋은 환경이 끌어 당겨져서 행복한 운명이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초능력자 아끼아미씨도 늘 「초능력을 개발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즐거운 기분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는 언제 봐도 대단히 즐거운 듯한 원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

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상한 고양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끼야마씨가 어떠한 인물인가 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무리 해도 즐거운 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기분전환으로 밖에 나와 깨끗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무한한 우주가 느껴지고, 상쾌한 고양감이 솟아납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봐도 대우주가 느껴집니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때로는 가볍게 한 잔 하고 술에 취해 기분 좋게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한다면 더할 수 없이 즐거운 기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두운 기분으로 초조해 하거나 화내고 있거나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일입니다. 가끔은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를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은, 일종의 정신 수양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만 두게 되면 고양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끊임없이 대우주 상념법을 행하든지 해서 자기 개발에 의해 즐거워 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과학」의 초월적 실천법

에덤스키 철학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요즘 세삼스럽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급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를 조금씩 알아 왔지만, 이렇게 우주적인 내용을 띤 철학은 이외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인 플라톤이나 근세에서는 독일의 칸트 등의 철학이 우주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이나 사유의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며 개인의 향상을 위한 방법, 다시 말해 자기 단련법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플라톤도 칸트도 단순한 관념론이라고 간주되어 쓸모없는 것이 되버렸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그 점에서, 에덤스키는 훌륭한 실천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덤스키의 「생명 과학」제 4장 안에 다음과 같은 초월적 실천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예지와 함께 친구 외계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마음 대신에 자기의 의식으로서 만물을 관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관찰 당하는 개체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 개체에 관해서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상대는 자신인 것입니다. 전체에서 따르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서의 인간은 전체와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느낌을 일으키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한 철학자나 종교가가 누군지는 모호합니다. 중국의 기공에서는 자신이 방안에 있을 때, 주위의 벽이나 천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 과학」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애덤스키는 자타 일체감의 고양법을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별개인 존재이고,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별개인 존재라고 하는 개별감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거대한 다면체의 거울이 있다고 치고, 여러분은 모두 내 모습이 비친 내 자신이다라는 느낌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와 같은 느낌을 일으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끝에서 그린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과 느낌과는 다른 것입니다. 느낌은 마음 속 깊은 곳의 의식으로 느끼려고 하는 감각입니다. 이와 같은 자타 일체감을 극한까지 계속해서 일으키면, 마치 끓어 오르는 녹말이 어느 시점에서 확 녹아서 투명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서 전신이 만물 안에 동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며 텔레파시가 가능해져 갑니다. 이것은 텔레파시 개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자기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한 때 우주적 고양감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쪽하고 그만 두면 또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 자타 일체감은 자신을 살리고 있는 우주의 의식과 타인을 살리고 있는 우주의 의식을 혼합시키는 듯한 기분으로 일으킵니다. 이른바 영혼과 영혼과의 합류입니다.

물질에게도 의식은 있다.

저는 때때로 머리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인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처해 졌을 때 잠들기 전에 의식에 몰려 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머리 속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 오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에 놀랐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 용어이며, 바꿔 말하면 우주 만물을 살리고 유지하고 있는 우주의 의식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 가득차 있는 것이며,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명 에너지원이고, 물질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도 의식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인형 조루리(일본에서 행해지는 인형극의 종류-역자 주)의 대가가 평상시 애용하고 있던 인형을 소홀히 다뤘더니 그 인형의 눈에

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더라는 기사를 어떤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는 웃어넘길지도 모르지만, 애덤스키에 의하면 모든 원자핵에는 영혼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생물이라도 원자의 집합체이면 의식적인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에너지 파동과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심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것을 가질 것

바람직한 일을 실현시키려면 기적을 일으키는 말의 응용에 의해 반복 상념을 하고, 이미지 범을 응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할 경우 확신으로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만물을 살리고 있는 대우주의 의식이고, 이것은 신이라고 불러도 같은 것이지만 신이라고 말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은 역시 우주의 의식(Cosmic Consciousness)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 과학」에 빈번히 나오는 애덤스키의 조어이지만 훌륭한 말입니다. 이 우주의 의식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마음과 의식과의 일체」라고 말합니다. 애덤스키가 전한 고도로 진보한 혹성의 사람들은 마음보다도 의식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게다가 텔레파시, 원격 투시 등의 초능력이 발달해 있고, 육체도 수백 세나 살 정도로 건강을 지속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구인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로 해서 살게 될런지가 우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카르마를 만들게 될지의 갈림길이 되겠지요. 길을 걷고 있으면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봐도 「이 사람은 내 자신이다」라는 강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을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을 보고도 「이것은 내 자신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역의 지지분한 콘크리트 벽을 가만히 응시하며 「이것도 내 자신인 것이다」라고 실감할 수 있을지의 여부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실행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우주인은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로 진보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딱딱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심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타 일체감을 높이는 연습도 즐거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세기 말이라고 해도 앞으로 몇 년밖에 없지만-세계적 대변동이 발생한다라는 설이 떠돌고 있

고, 지구에 올 우주인 중에는 악인도 있어서 가축의 내장을 꺼낸다든지, 그 밖의 못된 짓을 한다든지 하는 설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뜬소문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지구인 쪽의 정보공작 또는 악의가 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강한 사람이 공포를 수반하는 헛소문에 이끌리기 쉬운 것이고, 이것을 동질 결집(同質結集)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